

배경사



제 29 장 로마의 기독교

- 1. 기독교의 번성
- 주후 54년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그 왕위를 계승함.
- 바울은 네로가 즉위한 지 3년도 채 못 되었을 때, 로마의 기독교 단체가 전 세계에 그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고 표현했다.
- 로마 교회는 동부 지중해 여러 지역 이방 선교 결과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그 후 로마에 정착한 많은 이방인들 포함.
- 글라우디오의 칙령 (주후 49년) 이 내린 지 불과 8년 만에,
- 로마 기독교는 경이롭게 번성함을 로마서에서 본다.



Jesus 29 장 로마의 기독교

2. 바울의 복음 전파

- 바울이 로마에 연금생활을 하던 2년간 자유로이 복음 전파.
- 빌립보서 1:14은 바울이 로마 감금 생활 중 쓴 편지의 서두로, 로마교회가 바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로 큰 힘을 얻었음을 증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 F.F. Bruce는 로마서와 비교해서, 히브리서는 로마의 유대 기독교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으로 추정한다.
-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히 11:8)과 “아직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 편지가 네로의 박해 이전엔 쓰인 것으로 본다.





제 29 장 로마의 기독교

Jesus

- 3.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기독교인들의 순교
- 주후 54년 로마를 황폐하게 만든 대 화재 발생.
- 네로는 자신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의 비난을 막기 위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
- 사자의 밥이 되고 산 채로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순교 모습에 로마시민들은 오히려 네로의 불법을 목도하며 기독교에 감화를 받게 됨.

4. 로마 지도층의 복음화.

- 네로가 69년 죽임 당하고,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추대되어 (AD 70년)
- 로마 정치 및 경제가 안정됨.
-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교회 핍박 후, 귀족들 중에 오히려 복음 신앙 갖게 되는 자가 증가. 예. 클레멘서와 도미틸라.





제30장 신약 말엽 기독교

Jesus

- > 대내적
- > 대외적





제 30 장 신약 말업 기록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일서 4:2~3



1. 대내적

Jesus

1세기 당시 기독교 전파

지중해 북부 해안을 따라 가을까지

→ 스페인은 포함 안됨

아프리카 북부 연안을 따라 키레나이카까지

→ 로마의 아프리카 속국은 포함 안됨

로마는 200년 지난 후에 교회의 존재 인정

이 무렵 신약 기록되지만 정경 인정은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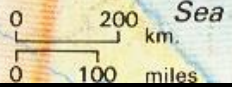
2세기 후반 보편적 교회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



AD 1 - 2세기 기독교의 확장



- 1세기 기독교 확장
- 1세기 중요 기독 공동체
- 2세기 기독교 확장
- △ 2세기 중요 기독 공동체
- △ 1세기와 2세기 중요 기독 공동체



1. 대내적

Jesus

당시 기독교 내의 위험-1

영지주의

: 사도들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럿 존재.

이들 중 가장 정교한 형태로 발달한 세력

→ 영지주의의 여러 학파

영지주의들

: 유대교를 기초, 이교를 상층으로 하는

혼합주의적인 천사 숭배 (골로새서)

국부적인 분열 (요한1,2서)



1. 대내적

Jesus

당시 기독교 내의 위험-2

영지주의의 다양성

→ 세린두스라는 교사와 연관

이원론적 세계관

희한한 기독교론 제안 (가현설)

신적 존재는 물질 세계와 깊은 연관 가질 수 없다

→ 실제의 성육신 부정, 창조, 부활 교리 삭제





1. 대내적

Jesus

교회 내의 문제 해결 모색

한 기독교 지도자 (요한 2서의 장로)

: 교회들에게 편지쓰고 순회 방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감독)

: 감독의 권한은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가현설의 가르침의 확산을 막는 것

대감독

: 2세기 중반, 모든 교회에 대감독 세워짐

보편적 교회 신앙은 영지주의 제도의 확산에 반대하여 교회 속에 계속 유지





1. 대내적

Jesus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원은 신비에 싸여 있다.

2세기 중·후반

: 교리에 있어 보편적 교회적이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영지주의적 기독교로 클레멘트, 오리겐의 지도 아래 우세





2. 대외적

Jesus

로마제국

교회에 대한 적대적 감정
제한된 지역에서 실제적인 박해



2. 대외적

Jesus

기독교에 대한 제국의 법규

3세기 시작될 때까지 있었음

2세기 초 플리니-트라야 황제 간의 서신

→ 로마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문서.

플리니, 기독교인 처벌하는 법규 찾지 못하자 황제

에게 상의



2. 대외적

Jesus

황제들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1

트라얀

기독교인들의 죄목

- : 관명 항거의 죄, 불법적인 단체 조직.
- 기독교 신앙 고백을 포기할 경우 석방.

트라얀 통치 아래 순교자들

- : 이그나티우스
- : 시므온, 의인 야고보를 계승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2. 대외적

Jesus

황제들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1

하드리안

트라야의 전례 따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지 않음
 단지 거짓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피소된 사람
 들을 보호하기 위함

